

# 주일 2 부에배

10시 15분 - 전교인 찬양 연습

※ 예배로의 부름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송 영 고개들어

목 회 기 도 최용제집사

봉 헌 / 감 사 봉헌: 고수는 성도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 성 도 찬 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새 79, 통 40)

교 회 소 식

설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6  
"창조목적은 예배입니다" 창 1:1

찬 양 / 기 도

- 나는 찬양하리라
- 오직 예수뿐이네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여기에 모인 우리(새 620)

※ 축 도 강래성 목사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설교 관련 말씀

출 3:10-12 사 43:7 요 10:34-35 요 1:1

벧후 1:14 창 3:5 엡 1:10 엡 2:1-10

### 5월 회중기도 및 봉사 명단

|     | 주일 1부 | 주일 2부 | 수요기도회      | 봉헌자 |
|-----|-------|-------|------------|-----|
| 첫째  | 금동성   | 조성준   | 서영주(5/02)  | 금메리 |
| 둘째  | 김부익   | 김태완   | 손원배 (5/09) |     |
| 셋째  | 김은석   | 손경석   | 우선진 (5/16) |     |
| 넷째  | 문명철   | 양지근   | 유오례 (5/23) |     |
| 다섯째 |       |       | 유주연(5/30)  |     |

### 청지기 보고

지난주일 청지기 보고

|      |       |
|------|-------|
| 일반연보 | 2,429 |
| 특별연보 |       |
| 특별수입 |       |
| 합 계  | 2,429 |

### 월별사역계획

당회-매주일 오후 3시

한가족특강-첫째 주

동산모임-둘째 주

부서별모임 및 직분자 모임 - 셋째 주

소그룹모임-넷째 주

제직회 - 다섯째 주

성찬 (2월, 4월, 7월, 11월)

# 교회의 교회됨 3

교회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물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른 삶에 있지 않다. 바른 삶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봉사의 모임이나 단체와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사회봉사 단체가 아니다. 물론 교회는 얼마든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고, 예배당 건물의 공간을 지역의 유익을 위해 제공할 수도 있으며, 교인들의 재능과 재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한 일에 힘쓰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됨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도가 말하는 교회됨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지 않으며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로 말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의를 실행함으로써 의 있는 자 되려는 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삶이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며 기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 평가될 수 없는 특이한 모임인 것이다. 세상이 윤리와 도덕을 바탕으로 자기 의를 쌓고 그것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곳이라면, 교회는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죄 밖에 없음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용서의 세계로 불러 주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세상은 의인의 세계다. 의인이 높임 받고 사랑받으며 의로운 행위가 자랑거리가 되는 곳이다. 반면에 죄인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항상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행동과 말씀을 하신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오직 죄인만이 예수님과 관계에 머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도대체 이런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른 삶을 실천한 의인이 칭찬을 받아야 하고, 상을 받아야 하며 천국을 가야 마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다. 예수님은 이러한 의인을 위해 오셔야 하고 그동안 바르게 살려고 힘쓴 것에 대해 칭찬을 하시고 보상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바르게 산 보람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회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롬 5:20)는 말로 표현을 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의만 넘치는 곳에 은혜는 없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의 의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곧 은총이며 선물이 것이다.

## 교회 소식

-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 교우소식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정관제정위원회를 구성 임명합니다  
-위원장: 김부익 위원: 금메리, 김은석, 김태완, 서성권, 우대성, 정윤구  
-5월 6일 한가족 공부 이후 목회실에서 첫 기도모임 갖습니다.
- ❖ 제 1기 여성 양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기연, 고수은, 변한나, 서영주, 손원배, 차영아, 최영옥  
일시: 5월 5일부터 16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3:30
- ❖ 다음주 5월 6일 전교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새 413, 통 470)합니다.
- ❖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가족 특강을 6월,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 ❖ 5월말에 말씀 사경회를 갖습니다.  
일시: 5/25 ~ 27 (5회 강의)  
장소: 에덴장로교회  
제목: "성도의 어머니 교회"  
강사: 김민호목사 (회복의 교회)
- ❖ 도서기증받습니다 (문의: 조재은)
- ❖ 본 교회 파송 전재철 선교사님의 사역(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 수요 기도회에서 사도신경(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강해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고백의 참된 본질을 더욱 깨달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 예배 시간 안내

|                 |   |
|-----------------|---|
| 주일 예배           |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0:30<br>EM (youth) - 오전 10:30, Jonathan Kim<br>Sermon - Jonah 2:1~10<br>유초등부 - 오전 10:40, 김은석 집사<br>"선지자의 죄" 창세기 20 장 |
| 수요찬양/기도회        | 오후 7:3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강해   |
| 미주복음방송 (AM1190) | 화요일 오후 5:00   |

# 에덴교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의  
성령의  
치리의  
의의  
올바른  
신실한  
행실  
정당한  
집행

## 주일 1부 예배

|                      |   |
|----------------------|---|
| ※ 예배로의 부름            |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br>(새 8, 통 9)                                      |
| 목회기도                 | 정윤구 성도  |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6주일) | 제 43문 (인도자):<br>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br>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br>유익은 무엇입니까? |

답 (회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功效)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所欲)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      |   |
|------|---|
| 교회소식 |   |
| 봉헌기도 |   |
| 설교   | 교 강래성 목사 - 창세기 강해 #6<br>"창조목적은 예배입니다" 창 1:1 |
| ※ 찬양 | 여기에 모인 우리<br>(새 620)                        |
| ※ 축도 | 강래성 목사                                      |

※ 표는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연보함은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가르치는 장로: 강래성

다스리는 장로: 김부익, 금동성, 문명철

905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목사님 E-mail: shepherdkang@gmail.com C:714.733.3486

http://www.edenpchurch.org